

# 동굴과 장묘 문화의 고찰

Chun-Zi Xu<sup>\*</sup> · 소대화<sup>\*\*</sup>

## Considerations on Grave and Funeral Culture related with Caves

Chun-Zi Xu<sup>\*</sup> · Soh, Dea-Wha<sup>\*\*</sup>

**요약** - 한반도 지역의 장묘 문화와 고려장의 유래를 살펴본다. 삼국시대로부터 고려사회에 이르기까지는 주로 불교문화의 영향을 받아왔고, 그 후 조선사회에 들어와서 우리 민족은 유교문화에 깊은 관계를 형성하여 왔다. 그러므로 오늘의 우리사회에서도 곳곳에서 유교문화의 깊은 뿌리를 찾아볼 수 있으며, 아직도 우리의 생활문화에서 유교적 관행이나 생활관습을 흔히 느껴볼 수 있다. 이러한 종교 사회적 문화 배경이나 충효사상으로 무장된 우리의 사회상을 살펴볼 때 과연 우리가 전해들은 고려장 문화가 실존적인 것인지에 대하여는 강한 의문과 부정적 사고를 떨쳐 버릴 수 없다. 또한 초식을 즐겨하는 우리 식생활 문화로부터 그들의 온순한 성격이 형성되어 왔던 민족 사회적 정서를 살펴볼 때에도 부모나 가족의 연장자가 늙고 병들었다고 하여 그들을 쉽게 버리고 남은 가족들끼리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에는 역시 강한 의문점을 뱉 수가 없다. 한국동굴학회의 사업계획에 따라, 중국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 화룡시 근교의 충천계곡(굴) 자연동굴을 탐사하고, 고려장 굴이라고 전해오는 석실무덤을 답사하였다.

**주요어** - 장묘, 고려장, 유교문화, 화룡시, 장인촌, 동굴

### 1. 화룡시 충천계곡 자연동굴

차에 앉아 오면서 저는, 우리를 안내해 준 현 지인, 김 노인한테서 동굴에 대해 상세히 알려고 물었다. 김 노인의 말에 의하면 이 동굴은 자연 동굴로서 김일성항일유격대원들이 전쟁 때 이 동굴을 이용해왔다고 한다. 김 노인은 13살 때 즉, 1946년에 북한으로부터 중국 땅을 밟아서 뿌리를 내리고 산 곳이 장인 골이라고 하였다.

김 노인은 이 충천계곡동굴을 수차례 다녀왔기 때문에, 이 동굴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다. 이 동굴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거의 모두가 김 노인의 안내를 받아서 다녀왔다고 한다. 국내에서 지질탐사 원들도 좋고, 군부대 그리고 동굴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찾아갈 때면 거의 김 노인이 안내를 해드렸다고 한다.

역사적으로 이 동굴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하는데, 중국 연변대학 학자 그리고 외국학자들도 여러 차례 충천계곡 자연동굴을 찾아 다녀왔다고 한다. 약 13년 전에는 북경대학에서 공부 중이었던 전 한국대통령 김대중님의 조카도 조선 역사를 조사하려고 연변의 각지를 돌아다니던 중, 이 동굴에 다녀왔다고 한다. 그 당시 김대중님의 조카 나이는 35세 좌우였다고 한다. 김대중님의 조카가 이곳에 왔을 때 증절모에 두루마기를 입고 말없이 걸어 다니는 모습을 지냈었다는 데, 그 때문에 처음에는 그 마을에서 정신병환자가 아닌가하고 의심을 받았다고 한다. 나중에 충천계곡 동굴에 대해 알아보려고 찾아다니다 김 노인을 찾아왔기에 김 노인의 아들이 배동 했었는데, 떠나갈 때 자기의 신분을 밝히고 떠났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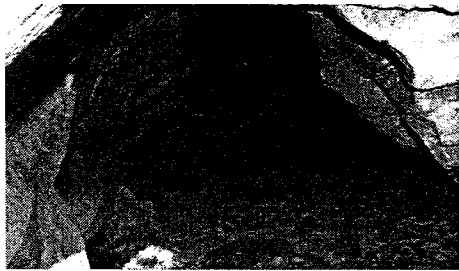
\* Science Reporter/Jilin, China,

\*\* 명지대학교 교수, dwhssoh@mju.ac.kr

현지인들은 이 자연동굴은 천지개벽이 일어나면서 생긴 동굴로 알고 있는데, 김 노인은 이 동굴 내부를 따라서 약 120m 되는 지점까지 들어가 보았다고 하며, 그래서 동굴의 첫 어구 지는 별로 크지 않다고 하였다. 그런데 안에 들어가면, 첫 어구지에서 얼마 들어가지 않아서 동굴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 뿔어졌는데, 나중에 가면 다시 한줄기로 만난다고 한다.



<입구바깥쪽 모습>



<입구안쪽 모습>

그림1. 중국 연변 화룡시 근교의 충천 골 자연동굴 입구의 외부와 내부 모습

동굴을 따라서 얼마쯤 들어가면 흐르는 물이 있었는데, 물이 흐르는 하지만 눈으로 보아서는 흐른다는 느낌을 가질 수 없었다고 하였다. 제일 깊은 곳의 물 깊이는 1.7m, 넓이는 14m 이었는데, 그것을 탐측하기 위하여 나무배를 만들어 가지고 타고 다니면서 탐측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 호수처럼 생긴 고여 있던 물이 1976년 중국 당산의 지진발생과 함께 물이 다 사라지고 없어서 지금은 그 당시 배를 띄우느라고 폼아놓았던 나무만 남아있고, 깊이가 1.7m이었던 그 자

리도 땅바닥이 돌아져 올라와 있고 땅이 축축이 젖어있다고 하였다. 동굴 안은 높이와 넓이가 같지 않으며, 넓은 곳은 운동장처럼 배구공을 칠 수 있을 정도로 넓고 좁은 곳은 또 아주 좁다고 한다.

내부를 약 120m 이상 밖을 들어가면, 들어가는 어구지가 비좁아서 사람이 들어갈 수는 있지만, 당시 군부대원들이 함께 들어갔었는데 만일 들어갔다가 혹시라도 굴 아궁이가 무너져 닳기면 공사가 크게 벌어져야 하므로 들어가지 말라고 해서 더 들어가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군부대원들이 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동굴을 따라 들어가면서 부대원들과 함께 전화선까지 늘어 설치하면서 들어갔다고 한다.

이번에는 우리들이 동굴에 대하여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 가다보니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임하게 되었다. 즉, 전등불을 준비해야 하는데 초를 사가지고 가다보니 촛불로서는 도저히 똑똑히 볼 수 없어서 약 30~40m 들어가다가 되돌아 나올 수밖에 없었다. 다음에 가게 되면 전등불을 필히 준비해 가지고 가야겠다고 생각한다.

안에 들어가니 어느 동굴과 같이 밖의 온도보다 훨씬 냉랭하였다. 그러나 동굴 안에도 공기 유통이 잘 되고 있어서 호흡하는데 신선한 공기가 희박하지 않았다. 김 노인의 말에 의하면 동굴 안에 공기 유통이 잘 되고 있다고 한다. 전에 군부대원과 함께 탐사를 들어갔을 때 배를 타고 탐사를 끝내고 나오다가 물에 빠져서 옷이 다 젖었을 때에도 불을 피우고 옷을 말렸었는데, 동굴 안에 연기가 차지 않고 가뭇없이 사라지기에 부대원들이 이곳에 공기가 희박하지 않아서 사람이 지낼 수 있다고 군대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말했다고 한다.

김 노인의 말씀에 의하면, 이 동굴은 김일성유격대원들이 전쟁 때 이 동굴을 이용했던 사실이 있다고 한다. 그때 김일성유격대 본부가 와룡 도끼 봉에 있었는데, 이 동굴은 김일성 본부와도 가까운 거리에 있었으며, 또한, 이 동굴은 김일성유격대원들이 항일전쟁 때 적을 크게 섬멸한 전쟁계곡(골)과도 가까운 위치에 있다.

## 2. 고려장의 유래

고려장은 일종의 노인유기(老人遺棄)이며, 사회적 활동이 어려워진 노인을 외진 곳에 버리는 습속을 일컫는 말이다.

사전에 보면, “고려장이란 예전에 늙고 쇠약한 사람을 구덩이 속에 산채로 버려 두었다가 죽은 뒤에 장사 지냈다는 일 또는 주로 나이 든 노인을 다른 지역이나 나라 따위에 버려두고 오는 일”이라고 풀이 되어 있다.

노인유기는 유목민족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것으로서, 정착민족에도 예가 있으며, 세계적으로 분포한다. 노인유기의 원인은 식량 사정 등의 경제적 조건, 몽골(蒙古)민족 등에서 볼 수 있는 민족 이동에 따르는 동행의 곤란, 아프리카 풍카족(族) 등에서 볼 수 있는 노령으로 인한 추장의 권위 실추 등을 들 수 있다. 그 밖에 질병에 걸리는 것은 귀신이 붙기 때문이라는 병자에 대한 공포 등 여러 가지가 있다. 한국에도 고구려 시대에 ‘고려장(高麗葬)’이라는 노인유기 풍속이 있었다는 전설이 있다.

중국 ‘위지(魏志)’에는 부여(夫餘)·고구려의 후장(厚葬) 풍속이 전하는데, 임금이나 귀족의 장사를 지낼 때 계생사상(繼生思想)에 연유하여 금은주옥의 장식품·기물의 부장(副葬)과 함께 많은 노비와 우마를 순장(殉葬)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이 고대사회에서 생산력 없는 노쇠자

가 천대받은 일과 관련하여 고려에서 늙고 병든 이를 버리는 고려장이 있었던 것으로 전하여진 듯하다.

그러나, 고려시대까지 병사자(病死者)를 유기하는 풍습이 있었다는 기록은 있지만 노인을 버렸다는 기록은 없다. 이러한 풍습은 지리적·인종적으로 우리와 가까운 통구스족·몽골족·시베리아 여러 종족에 있는 듯하며, 한국에서도 고려 이전 시대에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설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민간설화인 ‘기로전설(棄老傳説)’은 “70이 된 노인을 아들이 풍습대로 지계에 지고 산중에 버리고 돌아오려 할 때, 함께 간 노인의 손자가 그 지계를 다시 가져가려 하자 아버지가 의아스러워 까닭을 물은즉, 다음에 아버지가 70이 되면 실어내다 버리겠다는 대답에 아버지는 깊이 깨달은 바 있어 다시 늙은 아버지를 지고 집으로 돌아와 지성으로 공양하였으며, 이후로 노인을 버리는 풍습이 없어졌다”고 전한다.

기로전설(棄老傳説)의 내용은, 고대의 한국 민속 중에 사람이 노쇠하여 70세가 되면 산 속에 내다 버리는 풍습이 있었다는 전설에서 온 설화이다. 옛날 어느 집에서 70세가 된 늙은 아버지를 그 아들이 지계에 지고 산 속에 내다 버렸다. 지계를 버리고 막 돌아서려 할 때, 따라왔던 그의 아들(노인의 손자)이 지계를 다시 가져가려 하므로 아버지가 이상히 여겨 까닭을 물었더니, “아버지가 늙어 70세가 되면 이 지계로 다시 쳐다 버리려고요”라고 대답하였다. 그 말에 아버지는 뉘우치고, 노인을 다시 집으로 모시고 가서 효도를 다하였는데, 이로부터 이 악습은 사라졌다는 줄거리이다.

이 전설에는 ‘인간 70 고래장(高麗葬의 와전이라고도 함)’이라 하여 고려(고구려)시대까지는 그러한 풍습이 있었다는 설과 함께, ‘인간칠십고래회(人間七十古來稀)’가 와전되어 고려장의 설

화가 생겼을 뿐이지, 실제로 있었던 풍습은 아니라는 설이 있다. 그러나 이 풍습은 통구스·몽골·시베리아 여러 종족 간에 있었던 듯하고, 인도에도 비슷한 전설이 ‘잡보장경(雜寶藏經)’의 기록에 전해온다고 한다.

또 다른 일설에는, 고려시대에 고려장이란 풍습이 있어서 부모가 늙고 병들면 자식들이 지게에 엮고 갖다 버리는 풍습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그것이 바로 고려장이라는 풍습으로 전해지지만, 우리나라처럼 부모에 대한 효를 강조하는 나라에서 실제로 있었던 풍습인지의 확증이 없어 단순한 전설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그러므로 이것은 철저히 꾸며진 이야기이며, 그것도 일제에 의해서 날조된 사실이라는 주장과 함께 고려장이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경우는 어느 자료에도 없으며, 가축이나 노예를 부장품과 함께 순장한 경우는 있었을 지라도 부모를 산에 갖다 버린 일은 없다는 것이다.

고려시대까지 병자를 산속 깊이 내다 버리는 풍속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기는 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병자란 치료불가의 전염병 환자를 일컬으며, 특히 고려시대에는 불효 죄를 반역죄와 더불어 매우 엄하게 처벌했던 사실로 보아 고려장 풍속의 실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일이다.

따라서 고려장이란 말은 일제 때부터 쓰이기 시작했으며, 그 이유조차 사악하여 고려장이란 용어를 만든 까닭은 우리나라 문화재를 도굴하고자 꾸며진 용어라는 것이다. 전국을 뒤져 문화적 가치가 있어 보이는 물건은 닥치는 대로 일본으로 반출하더니 급기야는 무덤의 부장품까지 노리던 일본인이 한민족의 정서상 조상의 무덤을 파헤치기가 어려우니 그럴듯하게 꾸며 조작한 것이 전래된 연유에서 와전된 것이라 한다.

옛 부터 죽은 사람의 무덤에는 영혼이 있다고 믿었고 남의 무덤을 도굴하는 것은 죄질이 가장

좋지 않은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니 조선인의 경로효친 정신을 역으로 이용해 고려장이란 말을 꾸며내어, “조선에는 고려시대부터 고려장이란 게 있었는데 부모를 산 채로 내다 버리는 못된 풍습이며, 바로 여기 문헌 사람이 자기 부모를 생으로 고려장시킨 놈이므로 이 무덤은 파헤쳐도 괜찮다.” 라는 논리로 조선인 인부를 회유하여 무덤을 파헤치게 한 조작된 술책이라는 것이다.

예로부터 한민족은 충효를 으뜸으로 삼고 충효의 실천을 평생의 덕목으로 삼아 실천하고자 했다. 그러므로 자신의 친부모를 산채로 버리는 행위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정신이 일제의 알팍한 상술에 이용되어 고려장이란 용어를 만들어 내게 되었고, 그것이 버젓이 교과서에 실리는 우를 범하게 된 것이므로 하루빨리 고쳐야 할 것이며, 오히려 고려장은 일본 풍습이라고 주장하는 사람까지도 있다.

오히려 고려장(高麗葬)이라는 전래일화를 이용하여 교훈으로 삼아 효친사상을 가르치고자 한데서 빚어진 오류의 하나라는 해석도 있다.

그것은, 노모를 지게에 지고 고려장엘 가는 아버지와 아들의 일화로, 노모를 버리고 오는 길에 버린 지게를 다시 가져오는 아들의 지혜에 깨달음을 얻어 노모를 다시 모셔왔고, 그 후로는 고려장이 사라졌다는 교훈적인 이야기로써, 이는 교과서, 동화책, 그리고 사극에도 간간이 등장하는데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오랜 세월동안 구전되어 내려와 많은 사람들이 마치 고려장 풍습이 있었던 것처럼 알려져 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고려장 풍습은 어떤 고문헌에도 등장하지 않는다. 그것이 고려시대 주된 장례법이였다면 당시의 문헌에 기록되었어야 마땅하다.

고문헌에 일언반구 언급이 없는 이 풍습이 어

째서 존재했던 것으로 전해지는 것일까. 이에 대한 학설은 구구하지만, 대체로 일제의 한반도 강점과 더불어 온 도굴행위에서 파생된 날조된 이야기라는 추정이 강한 신뢰를 얻는다.

그러므로 충청대 장준식 교수는 고려장에 대해 생매장 풍습이 아니라고 기존의 통념에 썩기를 박는다. 고려장은 있었으나 그것은 사자(死者)를 후하게 대접하기 위해 석실을 만들고 식기류 등 일상 생활용품을 부장품으로 넣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불교가 국교였고, 유교가 수용됐던 당시에 인륜을 저버린 고려장은 있을 턱이 없다는 주장이다. 불교와 유교는 고려사회를 지탱케 했던 두 버팀목이었다. 충효가 백행의 근본이었고, 자비와 관용이 뿌리내렸던 유교, 불교의 사회에서 이러한 반인륜적 행위는 용납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그 왜곡의 진원지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이것 역시 일본의 식민사관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여러 면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반도를 강점한 일제는 우리문화 말살정책을 일삼아 퍼왔는데, 고려장도 그 식민사관의 파편을 맞아 일그러진 모습으로 구전이 된 것이다.

일본의 무리배들은 한반도에서 도굴을 자행하였고, 고려시대 수도 개성이 집중 도굴되었다. 일인들은 개성주변의 고분을 중점적으로 노략질하면서 수저, 그릇 등 생활용품이 나오자 마치 우리 민족이 수천 년 가난에 찌들어 부모를 생매장한 양 왜곡 선전한 것이 오늘에 이른 것이다. 단순한 고려시대의 무덤을 검증도 안 된 전설을 믿고 교육현장에서 일반화하여 가르치는 것은 우리의 역사를 비하시키는 매우 위험한 일이다. 일제는 그들의 역사 교과서도 특하면 날조하고 있지 않은가. 삼월 하늘을 진동시킨 구국선열의 함성을 생각해서라도 일본의 역사조작 부도덕성은 규탄되어 마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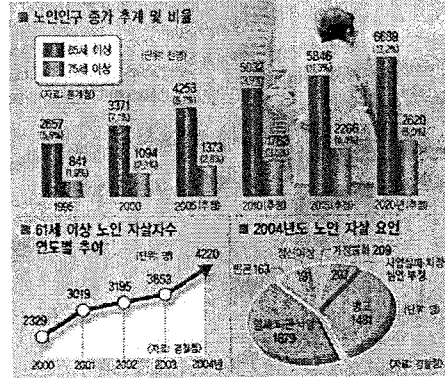


그림5. 최근 노인생활의 통계자료

또 다른 하나는 신 고려장의 개념이다.

고령화 속도 세계 최고라는 '늙은 한국'. 이대로 가다가는 2040년대 경제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다. 폐허의 한국을 경제규모 11위권으로 올려놓은 1960~80년대 근대화의 주역들은 고령을 이유로 뒷전으로 밀려났다. 핵가족화와 세대교체의 희생양이 된 이들은 지금 '질병과 고독'에 고통스러워하고 있지만 미래는 오히려 더 어둡다.

### 3. 고려장 굴 터

연변지역 화룡시 근교에는 옛 고려장묘로 전해져 온 굴 터가 있다. 인공유물이지만, 오래 전 우리 한민족 사회문화의 일면에서 볼 수 있었던 구시대의 장묘문화에서 전해오던 옛 고려인의 석실묘(고려장굴 터)의 현상이 보존되어 전래된 것을 확인하면서, 그 시대의 장묘문화와 사회상을 다시 더듬어 보는 유익한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더구나 바위돌과 같은 큰 석재를 사용하여 견고하고 튼튼한 석실 벽과 천정을 구축했던 모습을 보고 왕릉과 같은 거대한 장묘뿐만 아니라, 석실축조 양식이나 수준이 대단함을 보았고, 일반 서민의 장묘라기보다는 상류층 사회의 상당한 계급인물의 석실묘로 추정되었다. 이것이 어

느 정도 계층의 생활문화에 해당되는 것인지는 분명치 않으나, 상당한 수준의 장묘석실 축조기술이 사용된 점으로 보아 비록 규모는 다를지라도 왕릉과 유사한 형태와 기법이 적용되었다는 사실은 단순히 전해져온 고려장 굴 터라기보다는 그 시대 실력자의 장묘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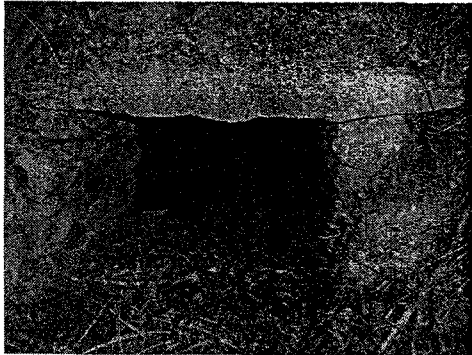


그림2. 고려장묘로 전해온 석실묘 입구



그림3. 왕릉의 내실모습을 닮은 천정 벽

특히, 한국동굴학회와의 협력활동과 관련하여 한국에서 추진하는 동북-중앙아시아지역 동굴 과학정보망 구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필요성에 적극 찬동하며, 앞으로 국제협력교류 활동을 통하여 참여와 협력을 다짐하며 화룡시 자연동굴과 고려장 굴 터로 알려졌던 고려인 석실묘의 탐사기행록을 맺는다.



그림4. 견고하고 완벽한 모습으로 보존된 석실 벽 내부

### 3. 결론

한반도 지역의 장묘 문화와 고려장의 유래를 살펴보았다. 삼국시대로부터 고려사회는 주로 불교문화의 영향을 받아왔고, 그 후 조선사회는 유교문화에 깊은 관계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종교 사회적 문화 배경이나 충효사상으로 무장된 우리의 사회상을 살펴볼 때, 과연 우리가 전해 들었던 늙은 부모를 버린다는 고려장 문화가 실존적인 것인지에 대하여는 강한 의문과 부정적 사고를 떨쳐 버릴 수 없다.

본문에서 열거한 바와 같이, 명확한 증거도 없는 고려장 관습이 우리 민족의 장묘제도에 뿌리 내린 것과 같이 알려져 온 것은 지나친 잘못이며, 여러 가지의 정황적 분석으로 보아 일체치하에서 왜구로부터 짓밟힌 왜곡된 허구문화임을 재확인하였다.

#### 참고문헌

- [1] 주사문, 소대화, 동북아시아지역경제발전과 국제과학기술교류협력 방안, 한국동굴학회 전반기학술대회, pp88, 2006.6.30.
- [2] 소대화 · Chun-Zi Xu, 화룡시 근교의 충천계곡 자연동굴 탐사기, 한국동굴학회지 '동굴' 72호, pp 1~8, 2006.6.30.